

## 기록식별자로서의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문

박지태 연구관(국가기록원)

기록관리를 하는 목적, 그리고 기록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록분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발표한 발표자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한다.

기록은 생산단계부터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으면 이후의 관리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록관리법령 체계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공문서분류표’라는 기록분류체계가 있었다. 전자기록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록의 실체는 화면상으로 구현되는 유저인터페이스에 있지 않고, 정보의 요소로서의 데이터와 맥락에 맞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저장장치 안에 있게 되었다. 과거보다 기록정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이용하기가 용이하게 되었다. 반면에 기록정보가 검증가능하고 생산될 당시의 상황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기록의 올바른 재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맥락을 통한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전자기록의 맥락을 재구성하도록 사용되는 도구가 현재의 BRM이다. BRM은 정부의 조직기능에 따라 계층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는 BRM의 가장 하위단위에 ‘단위과제’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를 통해 기록의 분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은 변화무쌍하며, 그만큼 유동적이다. 기능은 변화하는 정부 조직에 맞게 제때 수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단위과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조정되며,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BRM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정부기능과 기록분류체계를 동시에 하려는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단위과제 사전협의”와 “단위과제 분리운영”이라는 두 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만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쉽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정부 관련 법령, 기록생산시스템 등 유관된 분야와의 협의, 조정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쉽지 않은 과제라 생각한다.

분류체계는 현재 시점에서 일상적인 기록의 생산에도 관여하지만, 미래의 기록을 식별하고 선별·평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가지 개선방향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에는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운영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보존기간 책정의 적절성 정도만 판단하고 있는 정도에서, 사전협의방식이 되었거나 또는 별도의 기록분류를 하는 방식이나 모두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세밀할 수는 없겠으나 대략적으로라도 인력산출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범사업 실시 단계에 인력소요 산출이 포함될 예정인지?

둘째, 단위과제 사전협의제의 경우 대략적인 업무프로세스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분리운영시의 프로세스는 제안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BRM으로부터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리가 된다면 생산된 기록을 어떻게 관리를 위한 기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어떤 요소들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법령의 개정요인은 없는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안 분리운영하는 경우 업무프로세스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셋째, 기록관리법령이 제정되고 기록물분류기준표가 도입될 때까지, 또 법령의 전부개정 이후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과 시스템 적용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이미 두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두 개의 방안 중 하나가 선택되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적용하고 확산시킬 것인지 예상되는 소요시간과 적용에 따르는 예산소요는 얼마나 될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안과 2안 모두 단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야할 목표와 현재 놓여있는 상황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은 구상하고 있는지?